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TROUBLE WITH TWINS

가제 : 쌍둥이의 골치 아픈 문제

저자 : Kathryn Siebel

출판사: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쌍둥이지만 한 쪽이 조금 더 예쁘다면? 질투심이 빛은 실수와 서로 멀어져 버린 자매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나 늘 꼭 붙어 다니던 쌍둥이 자매가 어떤 일인지 각각 따로 살게 되었다. 한 명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늑한 집에서 가족들과 즐겁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는데, 다른 한 명은 거대한 창문이 달린 어두침침한 집에서 홀로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똑같이 생긴 두 자매의 이름은 아라벨라와 헨리에타. 분명히 쌍둥이이고 태어날 때부터 둘 다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자라면서 한 쪽이 조금 더 예뻐진 것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이유였다. 남들은 쌍둥이를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일이 많았는데, 아라벨라와 헨리에타는 누가 봐도 확연히 구분되는 이상한 쌍둥이였다. 아라벨라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를 않고 작은 일에도 잘 웃는 아이라 볼이 늘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볼 한쪽에는 깜찍한 보조개가 자리잡았다. 윤기가 흐르는 금발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어깨에 차분하게 내려오고 깔끔하게 차려 입은 옷에는 구겨진 주름 하나 없고 먼지 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 꼬마 소녀일 때부터 자매를 돌봐준 유모는 아라벨라의 머리를 매일 이리저리 다르게 묶어주고 오색 찬란한 리본으로 장식해서 더욱 귀여운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살 정도였다. 그러나 헨리에타는 모든 면에서 아라벨라와 정반대였다. 말수도 적고, 늘 심각한 생각을 하느라 아직 어린 꼬마인데도 표정이 꼭 나이 든 선생님 같았다. 잘 웃지도 않았다.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혀 줘도 몇 시간만 지나면 먹다 흘린 과자나 빵 부스러기에 더럽혀지기 일쑤였다. 머리카락 상태도 아주 심각했다. 뽀뽀하고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머리는 유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단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유모는 항상 똑같이 식탁에 앉아도 아라벨라에게 밥을 먼저 먹여줬고, 조금 더 자라자 아라벨라는 어른들 앞에 불러 나가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곤 했다. 어른들은 아라벨라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함박 웃음을 짓고 벌떡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다. 헨리에타는 늘 멀찍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성장통을 겪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두 쌍둥이 자매의 코믹한 모험기

처음에는 헨리에타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에게 둘러 싸인 아라벨라를 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아라벨라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 생일 파티며 놀이에 불러 다니느라 바빴지만 집에서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였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쌍둥이만의 연결고리가 두 사람 사이에도 튼튼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자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달라졌고, 결국 헨리에타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밤, 헨리에타는 아라벨라를 향한 분노와 질투심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다. 엄마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고, 잠든 아라벨라의 앞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것이다.

헨리에타가 저지른 일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머나먼 곳에 혼자 사는 프리실라 이모 댁으로 헨리에타를 보낸다. 어쩔 수 없이 이모 집에 온 헨리에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한때 배우였다는 이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시커먼 옷만 입고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잔소리가 너무 심했다. 저녁에는 생선 눈알까지 들어 있는 생선 머리 수프가 나와 헨리에타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이모가 사는 집 주변에는 고양이가 많아서 밤마다 소리도 없이 창가에 고양이들이 어슬렁댔다. 헨리에타는 조금씩 아라벨라에게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쓸데 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다는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 아라벨라도 마찬가지였다. 막상 헨리에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아라벨라는 몸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처럼 매일매일 허전했다. 결국 꿈에 헨리에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 아라벨라는 헨리에타에게 가봐야겠다고 결심한다. 두 사람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딸 아이에게 두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소설에서, 헨리에타와 아라벨라는 다시 만나기 위해 각자 길을 나섰다가 온갖 사건에 휘말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는다. 자매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갈등이 가득한 이야기에 개성 있는 삽화, 엄마와 딸 아이의 코믹한 대화가 덧붙여져 재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캐스린 시벨(Kathryn Siebel)은 중학교에서 인문학 교사로 일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Iowa Writers' Workshop)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목 : SHINY PIPPIN AND THE BROKEN FOREST

가제 : 샤이니 피핀과 망가진 숲

저자 : Harry Heape

출판사: Faber Children

발행일: 2017년 8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 피핀과 동물 친구들의 3부작 모험 시리즈

눈사람 만들기, 음악 듣기, 색칠하기가 취미인 피핀은 ‘펀스프링스’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마법의 숲과 가까이 붙어 있는 펀스프링스는 한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 데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강과 개울, 호수가 바짝 말라버린 것이다. 원래 ‘스프링스’라는 이름은 ‘샘물’이라는 뜻인데 마을 이름과 안 맞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숲에서 내려온 동물들도 목이 타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을 사람들도 고민에 빠졌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머니는 피핀에게 마을에 왜 비도 오지 않고 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알아보러 숲에 가보라고 권유한다. 피핀은 ‘샤이니’로 불리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숲에 사는 동물들이라면 이유를 알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영 자신 없어하는 피핀을 격려한다. 사실 피핀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애완동물인 생쥐 토니 외에는 동물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에게 샤이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 볼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피핀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등직한 친구 토니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토니는 샤이니라는 능력은 단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해지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게 되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과연 피핀이 동물들과 만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는 없었다. 피핀은 토니와 함께 숲으로 떠났다.

그러나 피핀과 토니의 여행은 곳곳에 도사린 위험 때문에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결국 피핀은 특별한 능력을 눈치챈 어느 못된 박사에게 납치되어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먼저 잡혀 있던 지질학자를 만난다. 그는 피핀에게, 박사의 사악한 속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샤이니 능력을 갖게 된 박사는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준다는 전설의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질학자도 그곳에 붙잡혀서 펀스프링스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었다. 마을에 물이 말라버린 것도 박사 때문이었다. 마을의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박사가 강줄기를 댐으로 막아버리고, 산꼭대기마다 거대한 선풍기를 설치해서 비구름도 다 멀리 쫓아버리고, 지하수도 다 막아버린 것이다! 모든 계획을 알게 된 피핀은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려면 동물 친구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

물이 바짝 말라버린 마을, 욕심쟁이 박사의 못된 계락을 막으러 나선 피핀과 친구들

마침 지하 감옥 문간에 나타난 개구리가 열쇠를 몰래 가져온 덕분에 몰래 감옥을 빠져나가려던 피핀과 지질학자는 박사가 악어를 데리고 들이닥치는 바람에 다시 붙들리고, 두 사람을 도와주려던 개구리까지 함께 감옥에 갇히고 만다. 한편, 피핀의 할머니와 자매인 블로파트 할머니 손에 들어간 토니는 피핀을 도와주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박사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사이, 지질학자의 아이디어로 마침내 피핀과 개구리 모두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 있을 박사가 아니었다. 멀리서 토니가 보내는 메시지 덕분에 피핀은 숲으로 들어가 박사의 못된 계획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줄 동물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고, 박사는 피핀을 다시 잡아들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박사의 계락에 넘어가 그를 도와주는 동물들의 힘도 만만치 않다. 피핀은 겨우 동물들을 만나지만, 그 동안 사람들이 숲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다들 사람이라면 질색한다. 잊에 걸린 기억, 총소리에 놀랐던 기억은 동물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심어준 것이다. 피핀은 과연 이들을 설득해서 박사를 쫓아낼 수 있을까? 왜 블로파트 할머니는 더 이상 피핀의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괴짜처럼 살고 있을까? 토니는 블로파트 할머니의 손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총 3권으로 완성될 ‘피핀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엉뚱하고 귀여운 피핀과 영리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펼치는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피핀의 이야기는 2권 『Shiny Pippin the Box of the Crocodile Magician (샤이니 피핀과 악어 마법사의 상자)』와 3권 『Shiny Pippin Ghost Monkeys of Gilligan’s Island(샤이니 피핀과 길건 섬의 유령 원숭이)』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저자 소개>

해리 힙(Harry Heape)은 TV 프로그램과 코미디 분야에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피핀 시리즈는 그의 데뷔작이다.